

# 직장 내 성폭력 인식 관련요인

강혜경\*, 김영아\*\*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e-mail:yakim@jejunu.ac.kr

## Factors related to sexual violence awareness in the workplace

Hyekyung Kang\*, Young A Kim\*\*

\*Dep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Dept.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 요약

본 논문은 직장 내 성폭력과 같은 위험행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장 내 동료가 성폭력 등의 위험행동에 노출된 경험을 조사하고, 직장인의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업체에 등록된 전국의 20-65세 직장인 3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참여자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의식, 성폭력 관련 인식, 상황 목격 경험, 상황 공감-불편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직장인의 성폭력 관련 인식 정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p<.001$ ), 목격한 위험 행동 범주 중 성희롱·폭행은 54.8%이었다, 본 연구는 성별, 나이, 총 근무기간, 직급 등에 따른 영향요인을 고려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반영된 직장인의 성폭력 관련 인식의 개선과 직장동료의 목격자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폭력 위험행동 목격자 개입 프로그램 등의 개발 시 동료 중심의 역할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서론

한국에서는 2017년 문화계 미투 운동부터 최근 부서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게는 62.6%에 이른다[1,2].

직장 내 성폭력에 적절히 대처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보다는 직장 내 상황과 환경을 공유하는 주변인 즉, 직장동료의 공동체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업무진행과 승진, 선발 등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권위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다수인 직장은 많은 시간을 함께 있는 동료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 조직분위기와 생산성에서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4].

직장의 성폭력 발생 위험 시 직장동료는 주변의 목격자가 된다. 이때 동료의 성별의식과 성폭력 관련 인식 등이 목격 상황에서 주변인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6]. 이에 본 연구는 직장 내 성폭력과 같은 위험행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장 성 관련 교육 참여 경험, 성별 의식, 성폭력 인식, 상황 불편감, 상황 공감 등을 조사하고, 성폭력 관련 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직장인의 성 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동료중심의 목격자 개입 및 대응자 역할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직장 내 성폭력과 같은 위험행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장 내 동료가 성폭력 등의 위험행동에 노출되는 것을 경험하거나 당시 개입한 경험과 성별 의식, 성폭력 인식, 목격 상황에 대한 공감상태 및 불편감 그리고 상황 목격 시 대처 개입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국내 온라인 조사업체에 등록된 패널에서 전국의 20-65세 직장인을 성별 및 연령별 균등할당하여 2021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했다. 수집된 자료

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23.0/PC software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 3. 연구결과

#### 2.1 직장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들의 성별 차이

연구대상자는 총 336명으로 남성 165명(49.1%), 여성 171명(50.9%)이고, 평균 연령은 44.22(±12.61)세 이었다. 직장 총 평균 근무기간은 15.02(±10.37)년으로 총 평균 근무기간과 월수입이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장 성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222명(66.1%)으로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잠재변수 중 성별의식, 성폭력 관련 인식, 상황 공감 그리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성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과 변수들의 성별 차이

변수		여성 (n=171) n (%) or M±SD	남성 (n=165) n (%) or M±SD	t or $\chi^2$
나이		43.91 ± 12.69	44.54 ± 12.56	0.46
총 근무기간		13.65 ± 9.11	16.44 ± 11.39	2.47*
월 수입	300만원 미만	132 (66.0)	68 (34.0)	50.25***
	300-499	30 (36.1)	53 (63.9)	
	500-699	7 (20.0)	28 (80.0)	
	700만원 이상	2 (11.1)	16 (88.9)	
직장 성 관련 교육 참여 경험	있다	112 (50.5)	110 (49.5)	.82
	없다	59 (51.8)	55 (48.2)	
성별의식		21.47 ± 6.62	26.01 ± 4.91	7.17***
성폭력 관련 인식		25.88 ± 6.50	29.32 ± 6.01	5.04***
상황 불편감		28.05 ± 7.19	27.90 ± 7.15	-0.19
상황 공감		26.96 ± 6.71	25.29 ± 6.58	-2.31*
자기효능감		29.90 ± 6.81	31.99 ± 6.52	2.87**
자아존중감		28.95 ± 4.87	29.46 ± 5.01	0.95

Note. \*p < .05. \*\*p < .01, \*\*\*p < .001.

#### 2.2 변수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들의 성폭력 관련 인식은 총 근무기간, 성별의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상황공감,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2).

[표 2]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1. 성폭력 관련 인식	1						
2. 총 근무기간	0.28***	1					
3. 성별의식	0.72***	0.25***	1				
4. 상황 불편감	0.04	0.03	0.04	1			
5. 상황 공감	-0.17**	-0.05	-0.10	0.35***	1		
6. 자기효능감	0.03	0.08	0.04	-0.03	0.08	1	
7. 자아존중감	-0.13*	0.16**	-0.10	-0.11	0.03	0.47***	1

Note. \*p < .05. \*\*p < .01, \*\*\*p < .001.

### 4. 논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동료가 성폭력 등의 위험행동에 노출되는 것을 경험하거나 직장인의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직장 내 성폭력과 같은 위험행동 발생 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성폭력 관련 인식 정도는 평균 27.57(±6.48) 이었다. 남성의 성폭력 관련 인식 정도는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p<.001). 이 결과는 한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1]와 유사하고, 국내외 모두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에 보다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7,8].

이어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직장의 총 근무기간은 성폭력 관련 인식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었고, 총 근무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증가됨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령이 성폭력 관련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에 비해 많은 사람이 성폭력에 대해 더 관대한 인식을 가졌다는 선행연구[9]를 지지한다. 따라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 상담 및 프로그램 구성 시 성별을 포함하여 나이 또는 직장의 총 근무기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에 대한 성 평등의식 정도가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하게 낮았는데(p< .001), 이는 국내외 선행연구[4,7] 결과와 일치한다. 전 세계적으로 통상 연령이 많은 남성이 직장 상급자로서 주요한 조직 내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근로 환경 역시 조직 내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근속기간과 연령이 낮은 상황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시대와 문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성별의식이 남녀 및 세대 그리고 직급간의 갈등을 쉽게 초래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도 없이도 초래될 수 있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발생 등의 갈등을 해소하고 잠재적인 성폭력 위험 행동 예방을 위한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 직장인의 일부로 연구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특히 성폭력 등의 위험행동 목격과 개입은 직장규모와 구성원 수, 업종별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직장의 특성과 범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성폭력 관련 인식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 Study on the Safety Status of Sexual Violence, Research Report 2019-37,

December, 2019.

- [2]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Report on sexual harassment and harassment by office workers, January. 2021.
- [3] Schneebaum, G., “What Is Wrong with Sex in Authority Relations-A Study in Law and Social Theory”. *J. Crim. L. & Criminology*, 105(2), 345-386, 2015.
- [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ational Consciousness Survey Research Report on Sexual Harassment, December, 2020.
- [5] Witte, T. H., “Bystander interventions for sexual assault and dating violence on college campuses: Are we putting bystanders in harm's wa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5(3), 149-157, 2017.
- [6] Coker, A. L., Bush, H. M., Cook-Craig, P. G., DeGue, S. A., Clear, E. R., Brancato, C. J., ... Recktenward, E. A., “RCT testing bystander effectiveness to reduce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2(5), 566-578, 2017.
- [7] Savage, L., Cotter, A., Perceptions related to gender-based violence, gender equality, and gender expression, *Juristat*, Statistics Canada Catalogue no. 85-005-X, December, 2019.
- [8] Studzińska A.,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Université Toulouse, France, 2015.